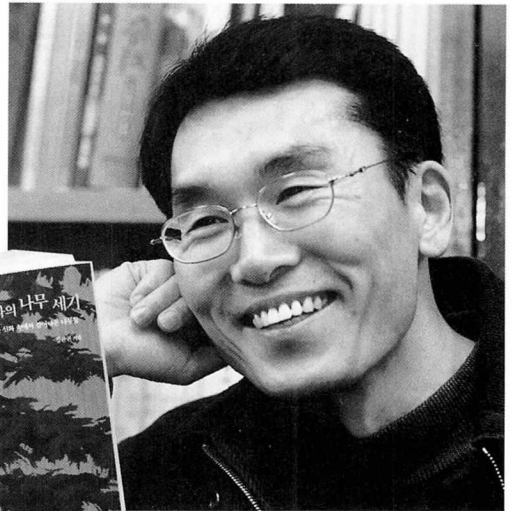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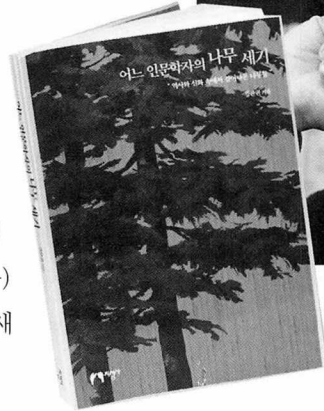


나무를 세면서 우주만물의 이치 깨닫는다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세기》 펴낸 강판권씨



강판권씨



지성사/A5변형/256면/13,000원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젊은 사학자가 최근 나무를 통해 역사를 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있다.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세기》(지성사)를 펴낸 강판권씨(41, 계명대·대구대 강사)가 바로 화제의 주인공. 이 책에서 강씨는 인문학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공부론으로 '나무 세기'라는 좀 별난 비법을 소개한다.

사물의 이치 깨닫기 위한 공부법

강씨가 나무를 세운 건 불과 일년 반 남짓. 그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나무는 그냥 가끔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나무를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세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 나무는 그의 존재 이유가 됐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학위로는 밥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참담한 현실에 부딪쳤습니다. 나무 세기는 나 자신의 정체성, 인문학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문학 부흥을 위한 새로운 공부법이에요. 성리학적 격물치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주변의 사물을 두루 살피는, 이른바 근사(近思)의 공부법이 그것입니다. 일상과 동떨어진 공부는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의 나무 세기는 성리학을 공부론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를 세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공부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나무를 세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나무 세기는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격물치지(格物致知),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깨닫는 방식을 그 나름의 독법으로 차용한 것이다.

본격적인 나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는 매일 아침 도시락 두개와 카메라를 들고 학교로 향했다. 먼저 교정의 나무부터 세기 시작했다.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그의 나무 세기는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야 교정의 나무를 모두 셀 수 있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에게 나무를 세게 하고, 나무가 왜 중요한지, 역사를 가르치는 그가 왜 나무를 강조하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 비를 맞으며 야외수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문자만이 언어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면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죠. 나무에 깃든 사연을 더듬어 가다 보면 나무가 인류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예술을 낳는 중요한 매개임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나무 통해 신화와 역사 해석해

이 책의 1부가 나무 독법에 관한 개론이라면 2부는 열여섯종의 나무들을 통해 신화와 역사 속의 나무

들을 불러내는 본격적인 나무 읽기 장이다. 그는 먼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인 박달나무, 달 속의 계수나무 등 신성성의 영역에 살고 있는 나무의 실체를 파헤친다. 그런가 하면 고효의 자살과 측백나무를 연관짓기도 하고, 복숭아나무를 통해 유비·관우·장비의 도원결의와 무릉도원에서 세상 근심을 잊은 시인 도연명을 떠올리고, 천도를 먹고 괴력을 얻었다는 손오공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나아간다.

그가 이처럼 신화와 역사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것은 그만의 학문적 이력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역사학은 물론 식물학과 문학 등을 아우르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넓혀왔다. 성리학적 공부론을 실천하기 위해 십년 넘게 성리학 경전을 읽었고 관련책들을 두루 섭렵했다. 또 궁금할 때면 언제든 달려가 직접 나무를 안아보고,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몇 번이고 달려갔다. 이 책은 이렇듯 인문학적 공부론을 직접 실천하려는 그의 땀방울과 열정이 일궈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점점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는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문학과 대중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들 사이를 연결시킬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무 세기가 성리학적 공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나무 세기를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과정에 더욱 충실하자고 주문한다. 물이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앞으로 나아가듯이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나무독법의 틀거리를 짰 그는 후속작으로 나무를 키워드로 조경과 학습환경의 관계를 조명하는 본격적인 나무문화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박옥순 기자